"사전에 의지 말고 논서에 의지하라"

제프리 홉킨스 교수, 3일 동국대 경주캠 강연회

티베트대장경역경원 세미나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은 6월 3일 교내 백주년기념관에서 '불교고전어 번역에 대하여'의 주제로 2016년도 전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프리 홉킨스(Jeffrey Hopkins) 미국 버지니아대 명예교수를 초청, '티벳경전의 번역(Translating Tibetan Scriptures)'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으로, △김준호(울산대) '명상관련 팔리어 용어 번역에 대한 몇 가지 시선' △심재관(상지대) '산스크리트 인도 의학서 유통과 번역의 문제들' △하유진(서강대) '불교 경전의 한역과 유통의 문제' △정성준(동국대) '티벳불전의 밀교 문헌 구조'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제프리 홉킨스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티벳대장경 번역에 있어 규정된 사전적 어휘만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적절한 유연성을 살려 번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번역하는 사람은 문장을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 사전에 의지하지 말고 논서에 의지하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지난 2009년에 설립됐으며 티벳대장경 역경사업을 위한 티벳어 한글 표기안, 티벳어 교재 발간 및 석학들의 특강, 국제학술대회 개최, 번역서 출간 등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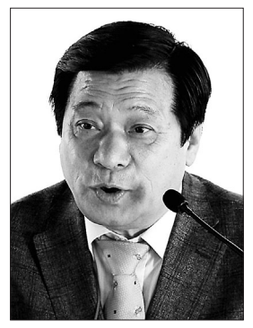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경주캠퍼스 티벳대장경역경원은 6월 3일 백주년기념관에서 '불교고전어 번역에 대해'를 주제로 전반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교대전, 근대적 신행위한 소의경전"

(재)선학원 · 보훈처, 8일 '만해 스님과 불교대전' 학술회의


양은용 교수


김상영 교수


전보삼 관장

〈불교대전〉은 만해 스님이 편찬한 현대적 불교 성전이다. 만해 스님은 불교유신사상에 입각해서 불교의 전통을 현대의 상황에 맞추어 〈불교대전〉을 1914년에 편찬했다.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의 사상과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과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만해 한용운과 〈불교대전〉'을 주제로 6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소재 정법사에서 '2016년 만해 한용운 추모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이날 주제발표 '만해 용운 선사 〈불교대전〉의 교의적 성격'에서 "〈불교대전〉은 한국에서 처음 편찬된 불교성전으로 근대 불교개혁사조를 이끌어간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조선불교유신론〉이 불교개혁사조의 실천이념을 밝힌 것이라면, 〈불교대전〉은 신행을 이끌어나갈 지침서"라며 "만해 스님은 변화된 시대에서 사부대중이 의지할 소의경전으로 〈불교대전〉을 편찬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불교대전〉이 일본 난조 분유(南條文雄), 마에다 에운(前田慧雲)이 편찬한 〈불교성전〉(1905)의 영향을 받았다"고 봤다. 두 성전을 비교하면 경전 인용 형식이나 국가, 사회, 박애, 계급, 위생 등 근대어를 목차로 삼고 있는 점 등에서 〈불교성전〉이 〈불교대전〉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교수는 "전 권을 불 · 법 · 승 삼보의 신행 체계 등으로 구성한 점 등 〈불교대전〉은 독자성이 확연하다"고 주장했다.

〈불교대전〉의 구성에 대해서는 "불 · 법 · 승 삼보신앙을 사회구제, 즉 포교로 연결시켰다"고 분석했다. 〈불교대전〉은 서품, 교리강령품, 불타품, 신앙품, 인연품, 자치품, 대치품, 포교품, 열반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서분, 정종분, 유통분의 경전 삼분과의(三分科儀)로 분류해 불교의 본질인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체계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만해 스님이 포교품에 포교의 부족, 포교의 득과, 포교의 주의(主義)와 같이 소제목을 단 것을 통해서도 편찬 의도를 살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신론〉은 불교개혁 실천이념
〈불교대전〉, 신행 이끌 지침서
불교 혁신 관점서 경전 재구성
당시 日〈불교성전〉 뛰어 넘어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주제발표 '〈불교대전〉의 자료적 성격과 간행 의의'에서 〈불교대전〉의 자료적 가치를 검토했다.

김 교수는 박포리, 마츠모토 신스케 등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불교대전〉은 1905년 일본 정토진종에서 발간한 〈불교성전〉과 매우 흡사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만해 스님은 〈불교성전〉의 체제를 일부 수용하면서도 독자적인 성전 편찬 작업에 전념해, 〈불교성전〉보다 1000여 개나 많은 경구를 갖춘 발전된 체계를 갖췄다"며, "중생의 지덕을 계발하기 위해 경 · 율 · 론 삼장을 초록하고 다시 그것을 유형별로 묶었다고 범례에서 밝힌 것이 〈불교대전〉이 〈불교성전〉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불교대전〉 제6 자치품과 제7 대치품에 인용된 경전 수가 전체의 59%인 1027개인 점에도 주목하고, "그 내용이 구체적 수행과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에 관한 내용들이 주류인 것으로 미루어 만해 스님은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현대화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품과 대치품에 보다 많은 비중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문제가 있지만 〈불교대전〉은 한국불교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전보삼 만해기념관 관장은 기조강연 '〈불교대전〉에 나타난 만해사상'에서 "〈불교대전〉 구성과 내용을 통해 만해 스님의 철저한 불타정신 체험과 생활불교 실천을 통한 대중 구제의 대비원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관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불서가 전하고 있지만 불교교리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까지 이처럼 소상히 다루고 있는 책은 없다"며 "만해 스님은 〈불교대전〉을 통해 생활 속 불교 실상을 파악케 하고, 불교는 중생 속에 호흡되는 생활 철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상담에 효과적인 유식 · 명상은?

명상심리상담학회 18차 정기학술발표회

마음의 본체인 식(識)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음을 강조하는 유식은 '내가 있다'고 믿는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또 명상이 심리적 장애를 겪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는 6월 25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명상상담평생교육원에서 '유식심리학과 명상상담'이라는 주제로 제18차 정기학술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는 유식심리학과 명상을 상담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유식을 수행하는 스승들의 경지를 논하는 〈유가사지론〉을 바탕으로 하는 자애명상과 공황장애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명상상담사례 등을 다룬다.

특히 초기 · 남방불교에서 좋아하거나 원한 맺힌 사람 혹은 무관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애명상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유가사지론〉 '성문지'에서 자애명상을 권정한 점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날 △무아론에 기반하여 자아의식은 설명이 가능한가(명법 스님) △공황장애의 명상상담사례(박명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자애명상(인경 스님) △〈유가사지론〉에 나타난 유가사와 작의수행의 관계(강명희 동국대 교수) 등의 글이 발표되며,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 총지명상센터장 동진 스님 · 문을식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 김재권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 등이 논평한다.

한편 자연치유연구소장이기도 한 인경 스님은 오는 16일 오후 1시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 호운미술관에서 '생리활성 성분분석과 에니어그램 성격분류'라는 주제로 '자연치유연구소 제1차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윤호섭 기자

"불상은 法을 표현… 무량한 보주 자체"

강우방 한국미술사연구원장 6월 3일 국박서 초청 강연

불상 · 불화엔 조형 언어 담겨
'영기문' 全세계에 공통 확인
보주는 삼천대천세계 압축해



"종교의 조형예술 가운데에는 현실에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현실에서 본 것에서 비슷한 사물로 비유해 설명하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납니다. 조형예술에는 '영화(靈化)'된 언어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야 불교 미술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사진〉은 6월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에서 '보주 보관 사유상과 중궁사 사유상의 새로운 해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한 · 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전시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강 원장은 자신이 주창한 '영기화생론'으로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일본 국보 주구사(中宮寺) 목조반가사유상을 해설했다.

한국의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보관에 주목했다. 보관을 채색분석한 강 원장은 "보관에서 영기싹이 나오고 보주가 발산된다. 금동반가사유상의 보관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보주(寶珠)들의 발산을 보여준다"면서 "우주생명을 품은 보살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구사 반가사유상에 대해서는 "머리의 상투 모양은 보주가 나온 것"이라면서 "발을 받치고 있는 것도 연꽃이 보주화해 화생한 것이며, 머리의 꼬인 모양도 영기문을 형상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이 강연 중 가장 강조한 것은 불상과 불화뿐만 아니라 조형 예술은 조형 언어로 읽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영기와 보주의 발현은 불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강 원장은 "지금까지 사람들은 불상을 우상으로 보았다"면서 "불상은 법(法)이고 장인은 법을 보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보주는 삼천대천세계를 압축한 것으로 그 안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고, 무량한 보주가 들어있고, 무한한 영기문이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규봉 종밀의 눈에 비친 唐代 선종은 어땠을까

한국선학회, 6월 24일 학술 세미나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은 오는 6월 24일 동국대 초허당 세미나실에서 '규봉종밀의 눈에 비친 당나라 선종의 판도'를 주제로 전반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선(禪) '평가자'로서의 규봉종밀(신규탁 한국선학회장) △우두종에 보이는 제선가 공유상통의 선지-종밀의 입장에 대한 비판과 보안(박건주 전남대 강사) △정중종의 법계과 그 선사상(김진무 원광대 강사) △북종선의 심성론과 수증론 연구(중앙승가대 교수 지은 스님) △중당시기 홍주종의 교세 화산 과정과 그 역사적 배경(김한신 경남대 교수) △하택종의 전승과 선사상 검토-종밀 및 금석문 자료를 중심으로(박인석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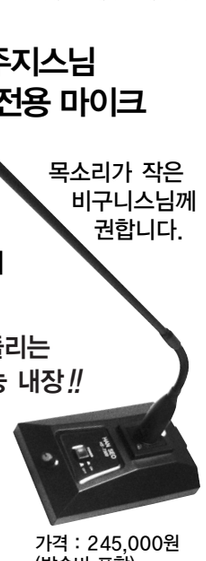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